

제2회 재외동포NGO활동가 대회 (2005년 11월 1일 화 ~ 4일 금)

- 주최 : KIN(Korea International Network)
 - 주관 : 제2회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추진위원회(10개 단체)
동북아두레공동체운동, 동북아평화센터, 동북아평화연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원,
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타운신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한국청년연합회(KYC),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 후원 : 재외동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코리아포커스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시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제2회 대회 추진위 10개 주관단체들 (무순)

1. 사단법인 海外僑胞問題研究所(해외교포문제연구소)

The Research Institute For Overseas Koreans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308/9호

전화 : 02) 766-7141/4 팩스 : 02) 766-7145

홈페이지: www.oktimes.net/www.oktimes.co.kr

메일: oktimes@hanmail.net/oktimes@korea.com

◎ 설립목적

본 연구소는 해외교포 제문제를 연구, 분석, 검토하여 정부의 교포정책 수립에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포와 본국민과의 유대를 돈독히 하여 교포로 하여금 조국애와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국가발전에 공헌하고자 한다.

◎ 단체소개

1964년 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현재까지 각종 교포관련 학술세미나를 개최, 교민정책 자료들을 수집 검토하여 정부에 교민정책을 건의해왔으며 월간 해외동포 'OKTIMES'지를 발간하여 국내외 교민관련 행사 및 각종 학술토론 자료, 각국 교민들의 동정 등을 수록, 해외동포 상호간의 유대를 도모함과 더불어 해외동포들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7.4남북공동성명 이후 해외동포들의 북한방문을 적극 유도, 조국통일의 활력소가 되도록 하고 있다.

◎ 주요활동

- (㉠) 각종 세미나 개최 (대통령 취임 정책포럼, 매년 개최하는 교포정책 포럼 등)
- (㉡) 해외교포 대상 여론조사 실시
- (㉢) 해외교포들에게 서적 등 책보내기
- (㉣) 대정부 건의서 제출
 - 교민청 설립에 관한 건의서
 - 해외동포의 날 제정 건의서
 - 헌법에 해외동포보호조항 삽입건의(통과)
- (㉤) 사진전시회
 - 하와이 이민 80주년 기념사진전(서울)
 - 브라질 이민 10주년 기념사진전(서울, 부산, 광주)

◎ 주요출판물

‘재일동포 100년사’, ‘在日韓國人’
‘조국의 민주화를 위한 해외교포의 염원’
‘在美韓國人’, ‘중동의 지정학’
‘교포정책자료’총 65집 발간, ‘OKTIMES’ 통권 131호 발간 등.

2. KYC(한국청년연합회)

○ KYC는 상식적인 생활인이 주축이 된 전국적 시민단체입니다!

- 젊은 생각과 행동이 열린사회를 만듭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취적인 활동력을 가진 생활인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광역 및 시군구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거나 또는 설립 예정인 전국적 단일조직입니다.

○ KYC는 역사적 전통을 잇고 있으며 시대정신에 부합합니다!

- 1980년대에는 민주화운동(민주화운동청년연합)을, 1990년대에는 민주개혁 완성과 통일운동(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을 전개한 청년조직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 <한국청년연맹준비위원회>와 <청년정보문화센터> 그리고 사회로 진출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 등이 '청년세대의 대통합에 기초하여 시민참여형 대안적 시민운동을 전개'하자며 1999년 6월에 창립하였습니다.
- 21세기 초반의 한국사회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정착', '양극화 해소와 사회개혁의 완성', '한반도 통일과 인류 평화의 실현'을 요구받고 있으며 KYC는 이를 시민참여형 자원활동 방식으로 추구해 갑니다.

○ KYC는 '자유로운 삶과 평화로운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 나와 사회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나를 바꾸는 일과 사회를 바꾸는 일을 통일적으로 추구해 갈 것입니다. 인간 내면의 힘을 기르면서 외부의 억압적 기제로부터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나아가 사람과 사람 간의, 개인과 집단 간의, 국가(민족)와 국가(민족) 간의, 인간과 자연 간의 평화로운 공존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 이를 위해 KYC는 '자유·생명·평화·연대'를 4대 핵심가치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 KYC는 4대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합니다!

- 생활운동 : 회원 및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성찰·나눔·참여를 실천함으로써 생활양식을 대안적 가치와 지향에 따라 변화시키도록 촉진합니다.
- 지역공동체운동 :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전근대적 요소를 제거하고 공동체적 문화와 주민의 자치능력을 함양시킵니다.
- 사회개혁운동 : 사회적 양극화와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청년세대의 사회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사회의 건설을 도모합니다.
- 평화통일운동 : 보편적 평화운동과 국민적 통일운동의 조화로운 추진을 통해서 한반도의 통일과 인류의 평화 실현을 추구합니다.

3. “역사와 인권을 생각하는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

주소 : (121-020) 서울 마포구 공덕동 90-16 1층

전화 : 02-706-5880 (혹은) 02-706-5882 / 전송 : 02-706-5881

홈페이지 : www.kin.or.kr

“역사와 인권의 관점에서 일관되고 평등하게”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는 지난 99년 창립 이래, 6년간 재외동포 역사 및 인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각국 재외동포들과 함께 그리고 국내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연대하여, 험난한 역사적 질곡 속에 놓였던 재외동포의 문제가 곧 우리사회의 문제이고 우리사회의 자화상이었음을 알리며, 문제 해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 과거 역사적 공백기에 어쩔 수 없이 떠나 살아남아야 했던 재외동포의 문제, 근현대사 민중의 문제이자 한국사회 민주화의 끝자락에 서있는 재외동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난 6년간 걸어온 길>

- 1997년-99년 “재외동포 이주역사 및 실태” 16차 월례포럼
- 1999년 “평등한 재외동포법 제정” 캠페인
- 1999년-2003년 KEEP(재외동포 한국체험교육프로그램) 추진
- 2000년~현재 “불평등한 재외동포법 개정” 캠페인
- 2001년-2003년 재일조선인 초청 및 청년결연사업 진행
- 2001년~현재 “조선(朝鮮)적 입국장벽을 넘어서” 캠페인
- 2002년 <KIS(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개최
- 2003년 “재외동포법 평등 개정 및 불법체류 전면 합법화” 캠페인, 90일 농성 전개
- 2004년 <바람직한 재외동포정책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제1회 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 개최

<2005년 이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1.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및 재외동포위원회 신설!”
- 700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할 기본 법제 정비 및 재외동포 문제를 관장할 대통령 직속 국가기구 신설 연중 캠페인
2. “빼앗지 말아요 우리학교!” 에다가와 조선학교문제 대책회의
- 이시하라 도쿄 도정과 맞서 싸우고 있는 에다가와 조선학교 문제 관련 대책회의 조직 및 120만 재일조선인 역사 바로 알리기 연중 캠페인
3. “빼앗긴 60년, 우토로에 새 희망을!”

- 1940년 일본 교토 비행장 건설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 마을 '우토로'의 문제를 알리고, 역사 청산 및 거주권 보장과 강제철거를 막기 위한 희망모금 캠페인

4. "재외동포에게 고국 자유왕래와 취업을 자유를!"

- 재외동포법의 실질적인 혜택에서 제외된 중국동포, 재CIS지역동포, 조선(朝鮮)적 재일조선인의 국내 자유왕래 캠페인

5. "각국 재외동포 활동가 네트워크의 기초 형성과 연대!"

- 2004년 제1회 대회에 이어 <제2회 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 조직

6. "재외동포의 역사와 현실을 영상으로!"

- 역사적 암흑기에 형성된 재외동포의 삶과 현실을 소개하는 <재외동포 영화제> 추진

<KIN 주요 활동자료>

<2000년>

『우리가 외면한 동포들』 <부제 : 재외동포법 개정운동 백서 1999-2000년> 12월.

<2001년>

『KIN월례포럼백서 1997.7-2000.2』 5월.

『입국장벽을 넘어서』 <부제 : 2001년 재일한국조선인 2-3세 서울방문 및 청년결연사업백서>, 12월.

<2002년>

『재일조선인』 <KIN정책실 세미나 자료집>. 2002년.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자료집 11월.

『해외 소수민족 및 이주 정책에 관한

Korean International Symposium 활동백서』 12월.

『서로에게 한 걸음 더』 <부제 : 제2차 재일조선인 서울방문 및 청년결연사업 활동백서> 12월.

<2003년>

『재일조선인의 가슴 속』 신숙옥 저(著), KIN기획, 도서출판 십년후. 5월

『국경의 틈새를 사는 우리들-재일조선인의 통곡이 들리십니까』 (신숙옥 선생 강연자료집), 5월.

『제2차 재일체험단 활동보고서』 7월.

『재외동포 법제 전문가 WORKSHOP』 7월.

『우리 함께 여는 새로운 날들』 <제3차 재일조선인 서울방문 및 청년결연사업 활동백서> 11월.

『재외동포법 개정 관련 전국민 1천명 여론조사 보고서』

(주)한길리서치 조사, 재외동포연대(추) 의뢰, 11월.

<2004년>

『재외동포정책, 정책추진주체, 관련 법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자료집』 8월.

『바람직한 재외동포정책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부제 : 5개국(한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헝가리)의 정책 분석과 비교> 9월.

『제1회 재외동포 NGO 활동가 대회』 자료집 <부제 : 2004년 재외동포의 현실, 그리고 미래>, 11월.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조)으로 2002년 6월 여야합의를 통해 제정된 법에 의거 설립된 공공법인입니다.

<주요 사업>

- 기념 및 추모사업
 - 6.10 등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행사 기획·주관
 - 열사 및 희생자 추모사업 주관·지원
 -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지 발굴·보존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 현대역사박물관 및 민주주의 교육센터 기능의 기념관 건립 추진

- 민주화운동역사 사료 수집
 - 민주화운동 및 관련 역사자료 수집 및 보존, 열람

- 민주화운동 및 민주주의 관련 연구
 - 민주주의 관련 학술 연구
 - 한국민주화운동의 세계화 위한 연구자료 개발, 해외 보급

- 민주주의 시민교육
 - 민주시민교육 자료 및 커리큘럼 개발
 - 민주시민 교육담당자 훈련

서울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40 www.kdemocracy.or.kr

5. (사)동북아평화연대

(사)동북아평화연대는 1996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내 재외동포사업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간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동포 돕기, 중국 조선족 동포 사기피해 문제 해결 등 어려움에 처한 재외동포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동북아의 오랜 냉전과 전쟁의 상흔으로 인한 반목과 대립을 극복하고 새로운 동북아시대를 구형하고자 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동북아지역은 여러 민족과 인종들이 함께 어울려 있으므로 우리의 교류 및 지원활동이 우리민족간의 협력을 넘어서서 동북아지역의 평화로 나아가야 하며, 또한 우리 한민족이야말로 동북아평화를 위한 연대의 중심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인식의 발전을 토대로 2001년 10월 27일에 순수 민간시민단체로 창립하였고, 2003년 6월에 외교통상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큰 꿈은...

국제적 범위의 시민연대활동을 통하여 동북아지역에 평화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작은 꿈은...

광범위한 한민족네트워크와 동북아시민네트워크 구축을 바탕으로 동북아지역에 평화공동체(문화공동체, 경제공동체)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조직적으로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민족네트워크 활동기반을 공고히 하고,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각국에 해외지부를 구성하여 동북아 각국 시민들과 함께 국제 NGO로 발전하여 동북아평화시민네트워크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동북아평화연대의 주요 사업

- **인도적 지원활동** : 조선족 사기피해사건 문제해결 지원, 중국조선족, 연해주고려인 정착 지원 및 자매결연 활동
- **문화교류활동** : 러시아 연해주의 고려인문화의날 후원, 원코리아페스티벌 참가 세계 한민족청년 동북아결연캠프, 연해주 한민족노래자랑, 동북아민족현장투어
- **교육지원활동** : 동포에게 도서보내기, 컴퓨터 보내기, 장학금 보내기, 선생님들의 모국연수, 정보화교육 등 중국 민족학교지원
- **정책연구활동** : 동북아시대를 여는 책 발간, 정책포럼 동북아코리안네트워크 국제회의 등
- **경제교류활동** : 동북아경제포럼 개최, 연해주 농업지원연구센터 설립 추진
- **연해주물결운동** : 연해주 물결운동은 동북아평화연대의 연해주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려인을 돕고, 연해주의 동북아에서의 긍정적 역할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의 평화로운 발전을 이끌어내는 동북아시민운동을 지향합니다, 러시아 우스리스크에 고려인이주 140주년 기념관 설립 추진 중.
- **나눔잉크캠페인** : 폐카트리지를 수거하여, 고려인돕기 기금으로 사용

6. 전남대학교 세계한상(韓商)문화연구단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은 기존 1991년부터 세계 흩어져 있는 재외한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현재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우수한 이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전하였다. 2003년 9월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부터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3년간 27억 규모의 연구비를 받아 “세계한상네트워크와 한민족문화공동체 조사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 연구는 한민족공동체의 중심축을 한상네트워크 및 문화공동체에 두고, 이를 다시 11개의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한민족공동체의 부문별 인프라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연차적으로 각 지역 내의 영역별 기초조사, 네트워크 실태 조사, 지역간 네트워크 연결고리 분석, 세계한민족네트워크 확산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중앙아시아 등 4개 지역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상네트워크의 핵심 축인 경제, 경영, 무역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한민족문화공동체의 구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들로서 교육, 언론, 사회단체, 인권, 집거지역, 문헌정보, 그리고 여성공동체 등의 영역을 다루고 있다.

연구단에 참가하는 국내기관은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를 비롯하여 대학, 학회, 민간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컨소시움을 구성하고 있으며, 해외에도 일본 오사카 시립대를 포함하여 5개 연구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단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 인력은 임채완 단장을 비롯하여 공동연구원 교수 30명, 전임연구원 13명, 박사과정 13명, 석사과정 20명 총 7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영역에서도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정치외교학, 법학, 교육학, 인류학, 문헌정보학 등 다양한 학문영역의 관점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단에서는 <http://www.hansang.or.kr>라는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하여 일반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연구단은 수집된 자료와 연구성과들을 DB화하여 온라인상에서도 대표적인 세계 한민족 포털사이트를 준비하고 있다.

7. 동북아 두레공동체운동

1. 취지와 목적

동북아 녹색두레운동은 한국의 두레공동체운동과 기독교인어든 비기독교인어든 이 운동의 취지에 공감하는 동북아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공동체운동은 김진홍 선생(현 두레마을집단 대표 겸 계명대학교 이사장)이 중심이 되어 1970년대 한국의 최대 빈민지역인 서울 청계천에서 빈민구제와 자활운동인 활빈공동체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청계천 판자촌이 철거되어 주민들의 상당수가 "활빈귀농개척단"을 결성하여 경기도 화성군 남양안으로 집단 이주하면서 두레마을 농업공동체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지금의 두레공동체운동은 베세토바프로젝트(BeSeToVA PROJECT:베이징-서울-도쿄-블라디보스톡-로스엔젤로스)를 연결하는 아시아 태평양 두레공동체 네트워크운동 프로젝트)본부를 한국 녹색평화운동의 성지로 자리잡아나가고 있는 지리산에 본부(지리산 두레마을)를 설치하고 녹색운동과 공동체운동 그리고 생명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레마을 공동체운동은 한국중앙본부/동북아본부/미주본부/유럽본부와 같은 4개의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의 지리산/중국 연변/미국 로스엔젤로스/러시아 연해주의 두레마을 복합농장과 리더쉽 인재 육성기관인 두레 연구원(장학재단)과 같은 직영기관을 중심으로 교육기관(고등학교, 아카데미), 연구기관(친환경 농업 및 문화경제관련), 기업(농업과 녹색식품)을 직영/합작/협력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2년 한중수교를 분기점으로 하여 동북아 지역국가인 중국/북한/러시아/몽고/일본을 중심으로 활빈구제 및 인도적 지원사업, 두레마을 복합농장 건립 및 생태농업 연수사업, 교육과 연구기관 합작건립사업, 학술교류 및 장학사업, 녹색기술경제 및 벤처산업 교류합작사업 등을 전개해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북한과 언어가 통하는 동북아 한민족부터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동북아지역은 여러 민족과 인종들이 어울려 살고 있으며, 지역 경제문화 불룩화 추세로 나아감과 동시에 동북아지역이 일일 생활권으로 되어가면서 동북아가 "하나"라는 인식과 "동북아인적 정체성"이 새롭게 싹트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추이에 발맞추어 처음의 우리 민족 간의 교류합작과 인도적 지원사업을 넘어서서,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녹색운동(환경보존과 녹색사회건설), 공동체운동(21세기 아시아적 공동체의 재창조), 생명 평화운동(인권과 반전평화군축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인식과 실천을 전개해나감에 있어 동북아지역에 산재하여 사는 코리아인들이야말로 동북아의 생명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연대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만 할 것이며,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부가 과부의 설움을 안다"는 말처럼 평화가 깨피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누구보다 "생명평화와 공동번영"의 가치를 잘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지역에 산재해있는 코리아인들, 중국조선족/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의 고려인들/재일조선인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적 희생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연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민들레처럼 곳곳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이들은 동북아인들이 보호해야 할 약소군체들인 동시에 동북아지역의 생명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하여 교량과도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할 "동북아인들의 공동자산" 인 것입니다. 이들이 예전의 피눈물의 회한을 벗어나서, 동북아지역국가 전역에 "하나의 동북아와 동북아의 생명평화 및 공동번영의 가치"를 퍼뜨리는 민들레 꽃씨 역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실어 나르는 기차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와 목적에서 동북아 녹색두레운동은 한국두레공동체운동이 중심이 되고 앞서 말한 취지에 공감하는 동북아지역 코리아인들,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넘어서서 "원(ONE) 동북아/원(ONE) 아시아"를 추구하

는 동북아인들이 함축하여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선 동북아녹색두레운동 웹사이트(www.greendoorae.net)를 매개로 동북아지역 각 국가의 도시와 농촌에서 전개되는 아름다운 경험과 지식 그리고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는 나눔과 교류협작의 마당을 만드는 일부터 운동의 첫 삽을 들었습니다.

"뜻이 사무치면 꽃이 핀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룬다", "꿈을 혼자 꾸면 꿈으로 그치지만 여럿이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화두로 삼은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응집된다면 분명 "동북아의 생명평화와 공동번영"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2. 운동지향과 정신

* 3대 운동지향

- 21세기 녹색사회를 일구는 녹색문명 운동 - 땅과 사람을 살리며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운동
- 인권과 생명존중과 반전 평화군축의 생명평화 운동

* 5대 정신지향

- 가난을 이기는 활빈 정신 -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바닥 정신
- 미지의 세계를 일구는 개척 정신 - 대안을 마련하는 창조 정신
- 섬김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

3. 연 혁

1977년 5월	중국 연변두레마을 농장(120만평) 설립
1998년 10월	"1998년 동북아 친환경농업 발전 심포지움과 워크숍" 공동주최(북경개최)
1998년 5월	북한 나진선봉 두레마을 1차 설립(20만평) 중앙민족대학 아.태경제문화발전연구소 한.중.미 3국 합작으로 설립
2002년 4월	러시아 연해주 핫산 두레마을 설립
2003년 1월	"제1회 한중 녹색기술경제심포지움과 교류협작상담회" 공동주최(장춘개최)
2003년 11월	연변자치주민정부와 장백산 두레마을간의 "장백산 두레 에코폴리스(ECO-POLIS) 조성 프로젝트"에 대한 의향 교환
2004년 8월	"2004년 동북아녹색경제발전 국제논단과 6개전문논단" 공동주최/주관(장백산두레 에코폴리스에서 개최)

4. 사업과 활동

- 두레마을 복합농장 건립 및 생태농업 지원사업과 활동
- 교육과 연구기관 합작건립사업과 활동/장학사업 및 인재육성사업과 활동
- 녹색기술경제 및 벤처산업 교류협작사업과 활동/문화교류협작 사업 및 연대활동
- 장애인 재활복지 귀금속협작사업과 중한 장애인 교류협작사업/정책제안 및 연대사업과 활동

5. 관련기관

- (중국)장백산두레 에코폴리스/중앙민족대학교 아.태경제문화발전 연구소
중국두레연구원과 중덕장학회
- (일본)일본 두레연구원/동경 두레 커뮤니티/오사카 두레 커뮤니티
- (러시아)연해주 핫산 두레마을/블라디보스톡 두레NGO.

8. 중국동포타운신문

2003년 8월 조선족동포 관련 새로운 사회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뜻을 갖고 조선족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가리봉을 거점으로 한 한국인 지역상인/지역주인과 조선족동포와의 화합을 먼저 이루고 가리봉을 '중국동포타운'이라는 특색 있는 마을로 만들면 한국사회에 중국동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 또 동포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한국정부도 동포문제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특화된 지역 만들기 운동을 펼쳐왔다.

대표적으로 가리봉은 한국의 산업단지인 구로공단의 배후지로 70, 80년대 한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다가 80년대 후반부터 구로공단이 해체되면서 가리봉지역은 텅 비어있는 슬럼가 지역으로 오랫동안 있었다. 그러다 90년대 중반부터 조선족동포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다시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게 된 지역적 특성이 있는 곳이다. 가리봉의 이런 지역적 특징을 충분히 살려 이곳을 중국동포와 함께 하는 마을로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가리봉중국동포타운추진위'를 만들고 신문이름도 '가리봉중국동포타운'이라고 했다가 지난 2004년 3월6일부터 '중국동포타운신문'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2005년 11월 현재까지 69호를 발행해 오고 있다.

중국으로 진출해 생활하는 한국인이 늘어나는 현시점에서 한국인과 조선족동포를 연계시켜주고, 조선족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잠재력을 알려주는 신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한국에 나와 있는 조선족동포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미래에 대해서 올바르게 준비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신문이 필요한 시점이다.

-편집 방향

첫째: 국내 또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조선족동포간 상호이해하고 공존하는데 기여
둘째: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동포들의 신뢰를 얻고, 그 바탕으로 건전한 코리언 공동체로 발전해나가는 데 기여.

셋째: 중국 현지 동포사회뿐만 아니라 중국 매체와 협력하여 한중경제교류에 기여

-'중국동포타운신문'이라 명칭한 이유

중국동포는 한국인이 조선족을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대개 한국인의 의식 속에서는 '조선(족)'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족' 용어 대신 '중국동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물론 중국동포의 정확한 표현은 '재중동포'이다. 하지만 한국 언론이 '조선족'을 '중국동포'라는 용어로 구분지어 소개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중국동포' 하면 '조선족'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따라서 중국동포타운신문은 지역적으로 '가리봉'을 '중국동포타운'이라는 특화된 지역으로 발전시키자는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시작된 신문으로 그 이름을 유지하고 중국과 동포사회의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1세기 동북아시아에 우리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념과 제도를 초월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중심지역에 있는 중국동포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되며, 중국동포타운신문은 중국동포를 통한 중국과 한중동포 사회의 민족화합과 한중교류의 맥을 잇는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9. 동북아평화센터

NEAR is Beautiful !

NEAR 란?

가깝다는 뜻도 되지만 Noth East Asia Region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동북아란 뜻도 된다.

우리는 NEAR is Beautiful 의식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동북아의 상황을 극복하고 협력과 평화의 동북아를 구축하려는 대안의 논리이며 아시아와 자국을 차별하려는 일본의 脫亞論에 대신한 동북아의 제휴와 연대를 강조한다. 또한 진정한 경쟁력은 一國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와의 좋은 관계에서 나온다고 하는 새로운 경쟁력의 개념입니다.

사단법인 동북아평화센터는 1997년 3월 21일에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열어갈 큰 소명을 안고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 제정구의원으로 부터 시작된 동북아평화센터는 동북아에서 아시아인들의 지혜와 능력이 인류의 진보와 발전을 이끌고, 변화와 활력의 중심에 있는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일이 시대의 중요한 필요입니다. 평화와 안정의 동북아 신질서는 동북아를 무대로 벌어지고 있는 국가 간의 제로섬 게임의 경쟁을 극복하고 상생, 공영하는 포지티브 섬의 대안을 찾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창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동북아평화센터는,

첫째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비롯한 평화사상과 전략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동북아의 평화증진에 기여합니다.

둘째로, 평화에 대한 비전 공유 노력을 통하여 국가주의를 극복한 21세기 새로운 리더십 형성에 기여합니다.

셋째로, 우리민족에게 부여된 절박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 동북아평화센터의 위상 : 실천적 Think Tank

동북아평화센터는 시민사회운동과 함께 가는 실천적인 Think Tank로써 “시민 주체의 동북아시아와 평화체제”의 건설에 기여하고 합니다.

● 주요활동과 계획

1. 동북아 경제협력 심포지엄과 워크숍
2. 동북아의 군축과 비핵지대화 심포지엄
3. 동북아 평화(개발) 은행 구상 심포지엄
4. 안중근 동양평화론 계승 워크숍과 국제 심포지엄
5. 동북아 역사문화관력 심포지엄과 워크숍
6. 연례흥부기행과 세미나

● 동북아 평화센터의 사업

1. 안중근 동양평화기금회 설립 프로젝트
2. JMJ (지리산*묘향산*장백산) 동북아 녹색산업 개발 프로젝트
3. 동북아 정보센터 설립과 동북아 사전 발간 프로젝트
4. 안중근 평화 뉴스레터 발간
5. 동북아 차세대 리더십 육성과 컨퍼런스
6. 안중근 의사 한*중*북한*일 합작 뮤지컬 및 영화제 제작 기획
7. 생명과평화영성 프로그램 피크닉

● 동북아평화센터를 섬기는 사람들

▣ 이사진

이사장 : 김영호 (유한대 총장, 전 산업자원부 장관)

고은 (시인, 세계한민족작가연합 회장) 권영길 (민주노동당국회의원)

김경희 (한국정보출판협회 회장, 지식산업사 사장)

김근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김부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원내 수석 부대표)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김진경 (연변과학기술대 총장)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전 인천대 총장)

나종일 ((주)일한국대사)

문국현 (유한김벌리 사장)

박성준 (아름다운 재단 대표, 성공회대 교수)

백원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오재식 (전 한국월드비전 회장)

원희룡 (한라당 국회의원 최고의원)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형모 (시민의 신문사 사장)

임진철 (동북아 두레공동체운동 대표, 중앙민족대 객좌교수)

▣ 운영이사

김성재 (한국의장주식회사 사장)

박승흡 (매일노동뉴스 사장)

박종호 (한국기업기술연구원 원장)

양민호 (한국광업진흥공사 감사)

이문기 (유한대학 교수)

이상목 (새결주식회사 사장)

이회수 (한국기업사회책임연구소 소장)

정인철 (한경햇벤처주식회사 사장)

▣ 상임이사

임진철 (동북아두레공동체운동 대표, 중앙민족대 객좌교수)

▣ 사무국장

박영모 (삶을 예술로 만드는 사람들 Conductor)

10. 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

※ 설립이념

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은 '모든 사람은 인종과 언어와 국가를 초월 하여 존엄성을 갖는다'는 가치를 그 설립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립이념은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소극적 차원의 활동을 벗어나, 이주 노동자 스스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과 권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설립배경

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은 국경을 넘는 노동력의 이동 흐름 속에서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찾고자 이 땅에 온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산업재해, 폭행, 질병, 임금체불, 사기, 사망 등 각종 고난의 현장에서 외국인신분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1992년부터 상담하기 시작했고, 1994년 4월에는 본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은 모든 사람은 인종과 언어와 국가를 초월하여 존엄성을 갖는다는 가치를 설립이념으로 하여 노동상담, 의료상담, 생활상담, 교류/문화사업, 쉼터운영, 한글/컴퓨터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업

1. 무료 상담 : 매일 10시~6시 (단 월요일 휴무)
2. 무료 진료 : (매주 일요일 10시~6시)
3. 종교 상담
4. 쉼터 운영
5. 장례식 지원
6. 한국어학당 : 매주 일요일 3시
7. 컴퓨터교실 : 매주 일요일 1시~6시
8. 교육과 수련회
9. 감옥에 있는 수감자 돕기
10. 나눔의 집 운영
11. 문화활동과 역사탐방
12. 결혼가정모임운영
13. 외국인자녀 학교 보내기